

정 상태

씨빌 캐버신

변색된 벽지, 곰팡이 핀 벽, 비좁은 방에 놓인 여러 개의 침대, 그 틈 속에 웅송그리며 모여 앉은 식구들. 사진 작가, 정상태의 연작, 'Life of Deportation and Settlement'에 묘사된 분위기는 일견 차가운 느낌을 준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들은 웃고 있고 서로 감싸 안고 있으며 그렇게 강한 희망의 빛을 내뿜는다.

각각의 가족 사진은 사진 속 우크라이나 가족들과의 짧은 인터뷰의 일부를 내포하고 있다. “오직 그녀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집을 방문하는 것이 그녀의 꿈입니다.” 라고 Kiev의 가족들과 함께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Janna Kim에 대해 작가는 말한다. Janna Kim의 친척들은 1930년에서 1937년 사이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추방된 수많은 한국인들과 같은 희생자들이었다. 그녀는 집에 대해 마치 익숙치 않은 영토로의 강제 이송을 견뎌야 했던 잔혹한 가족사를 거꾸로 되짚기라도 하듯 이야기한다. 분명한 정체성도 없이 그녀의 가족들, 이러한 반감에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과거에 관한 꿈, 의구심 등에 쫓기며 살아간다.



Jung Sung Tae

Sybille Cavasin

Tarnished wallpaper, rotting walls, multiple beds in a single room, and families huddled together tightly in the middle of it all. The environments depicted in Jung Sung Tae's photographic series *Life of Deportation and Settlement* initially confront with a sense of coldness. Then the people smiling, strong and holding each other close build a glimmer of hope.

Each family portrait is accompanied by a short statement collected from the artist's interviews with these families in Ukraine. "It is her dream to visit the home that exists only in her memory," Jung says of Janna Kim, pictured with her family in Kiev. Kim's relatives were victims along with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 the deportation of Koreans from the Soviet Union from 1930-1937. Kim speaks of 'home' as if attempting to retrace her family history and make sense of the hardships and struggles they endured when being forced into unfamiliar territory. Without a clear, genuine identity to claim as their own, Kim's family and many others affected by these adversities are haunted by dreams, and wonderings, of the past.

In the 1930s Korea was a protectorate of Japan, and because Japan was hostile towards the Soviet Union all Koreans who lived in the Russia's far east were forcefully pushed out. Nearly 170,000 people were deported to Ukraine and Kazakhstan, many of which would not make it. Survivors were left with no choice but to use anything and everything they could to pull through in their refuge countries-sustaining the lives of their families through farming opportunities, shelter and donations shared by locals. Yet many people were separated from their communities and left alone to fend for themselves.

Jung's photographs both capture and explore the current lives and situations of multiple ethnic Korean families (also known as Koryo-saram) who are the living proof of these tragic events. Jung's large-scale works are each displayed on several vertically arranged panels: possibly symbolizing a life in pieces, missed connections, or portraits that are



↑
Koryo-saram Lee Edward(top), Ko Alla(bottom),
Archival pigment print on Korean paper,
112,5×150cm, 2016

←
Koryo-saram Kim Janna,
Archival pigment print on Korean paper,
112,5×150cm, 2016

1930년대의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고 일본은 소비에트 연방에 적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러시아 동쪽 변방에 사는 모든 한국인들이 추방되기에 이르렀다. 거의 170,000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되었지만 대다수는 이주에 성공하지도 못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추방되어 온 나라의 소작민의 삶을 살게 되었고 지역민들의 구호품이나 기관에 의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역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를 격리시켰다.

정성태 작가는 이렇게 다중 국적이 된 한국인, 즉 비극의 역사의 산 증인이며 아직도 그로 인한 상처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고려인들의 현재의 삶과 상황을 화면에 담아 우리에게 보여준다. 파편화된 삶, 이산가족이 되어버린 동포들, 어떤 움직임이 감지되는 상태에 있는 듯 하면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상을 나타내려 각각의 사진을 수직으로 된 판넬에 맞추어 배열하였다. 한 캡션에는 “그는 한국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다.”라고, 또 다른 캡션에는 “그들의 꿈은 한국어를 배워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관람객에게 주어지는 인식은 되찾을 거라는 희망도 없이 무언가 귀한 것을 잃고 말았다는 것, 아직도 어긋나가는 전쟁의 파급 효과, 그 잔인한 현실에 대한 강조인 것이다.

작가의 연작은 우리 대다수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알리고 있다. 즉,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을 자유, 어딘가 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자유로이 떠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 정체성도 없이 그저 건물만 존재하는 상태가 아닌 집에서 성장하며 미래를 키울 수 있는 곳, 실현 가능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곳,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집에 대해 말이다. 그의 이미지들은 고통과 되찾을 길 없는 상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강함과 회복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고려인들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도전들을 견디며 살아남았다. 그들에게 강요되었던 타지에서서의 예측 불허의 미래는 이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초석이 된 것이다. 불확실함과 과거에 대한 불가사의 등에 사로잡혔던 이들 가족들은 이제 그들의 선조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회복력으로 그들만의 미래를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다.

set in a state of motion but are not yet complete. “He had a longing for Korea,” one caption reads. “Their dream was to learn Korean and visit Korea one day,” reads another. The perspective that is offered to spectators is that what was taken has now been lost without any hope of retrieval, emphasizing the harsh reality of the lingering effects of war.

Jung’s series reveals what many of us may take for granted: our ability to move from one place to another; to call a place home, to leave that home, and then return again, to grow and build a future without dwelling on the building blocks of our lost identity, to have dreams that can be made possible. These images tell the story of pain and irretrievable losses but also a story of strength and resilience. But by no insignificant measure the Koryo-saram survived unimaginable challenges. What was once forced upon them as an unforeseeable future in a foreign land, is now the foundation for what is to come. The families, gripped by uncertainties and mysteries of their pasts, are stepping into their future with the same resiliency of their predecessors. As the world moves forward and futures are built, new dreams and possibilities will be built too.





/
 Sungtae Jung, Koryo-saram, Video installation,
 Projected on Korean paper, variable size, 2016-17

←
 Exhibition, Life of deportation and settlement,
 Installation view,